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대원정사 있고 합천 해인사가 운영하는
 고품격 포교 회에 규모 남달라
 영가인도 재 천문사당
海印寺 미타원
 021737-7159 / 011-742-7159



첫 국제불교영화제 LA서

11월 20~23일, 20개국서 300여편 출품

전 세계 불교영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불교영화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좌측사진 공식포스터)
 미국 불교영화협회(Buddhist Film Society)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시립예술박물관(LACMA)에서 제1회 국제불교영화제(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IBFF, www.ibff.org)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20여 개국 300여 편의 출품작들 가운데 10개국 30여 편의 영화가 선정돼 상영된다. 또한 기존 영화제와는 달리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특집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아동물 등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영상물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상영예정작은 '쿤둔(Kundun)', '컵(The Cup)', '매트릭스(Matrix Series)' 등 한국에서도 상영된 영화들과 헤르만

특집TV프로·다큐·아동물 등 장르 다양
쿤둔·컵·매트릭스·싯다르타 등 상영

해세의 소설을 영화화 한 '싯다르타'와 티벳의 스님을 주제로 한 '걸음마다 평화' 등의 비디오 작품들이다.
 LA시립예술박물관의 '각성(AKAKE)'이라는 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전시 등의 부대행사도 UCLA와 재일일본인문

화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영화 관계자와 일반 관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불교 관련 영화에 대한 자료 제공 및 강연과 토론, 발표 등의 시간도 마련됐다. 또 IBFF 이익증진을 위한 불교 사진전이 11월 14일부터 '패서디나 예술박물관(PMCA)'에서 개최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밀

튼 크레이서가 이번 영화제의 포스터를 특별 제작했고, 불교계간지인 <트라이시클>과 <삼팔라 선>이 미디어 부문 후원을 맡는 등 이번 영화제에 대한 미 문화·예술계의 관심과 후원도 뜨겁다.
 미국 불교영화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는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교영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서로의 민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북녘땅에도 법음이 넘치길

10월 1일 보현사를 방문한 남한의 참배단 일행들과 보현사 승려들이 함께 대웅전 앞에서 탑돌이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공식적인 허가 없는 탑돌이를 할수가 없다.

신계사지 복원 평양서 실무회의

조계종대표단·문화재 전문가 등 21일 방북

북한 신계사지 복원문제 합의를 위해 조계종 대표단과 문화재전문가 등이 10월 21일~25일 방북한다. 조계종은 실무회의를 통해 불사 추진위원회 조직과 사업일정 등 세부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남북 실무자들의 사전모임에서 조 불련이 신계사 복원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수차례 논의만 된 채 남북간의 의견차이로 실행되지 못한 신계사 복원 작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정부측 공문조사 창구

문광부 증무실로 정해

북한산 관통도로 공문조사와 관련해 정부 창구가 문화관광부 증무실로 정해졌다.

문화관광부는 10월 9일 조계종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문조사 정부 창구가 문화관광부 증무실로 정해졌다.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 김영주 과장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 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원:(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규모 박람회 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됐다.
 대한불교청년회, 녹색연합 등 37개 민간공익단체와 KT, 삼성전자 등 7개 기업 사회공헌팀이 참가, 10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Giving Expo 2003'은 비영리단체들의 활동내용을 홍보해 바람직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대불청은 회원들의 활동이 불교적 수행을 통한 대사회적 개혁운동임을 알리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천성산·금정산 터널구간 반대투쟁운동 등의 환경활동과 반전평

자비의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무언보시라고 한다.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내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들은 경제적, 힘의 논

보시문화 확산

화, 통일사업, 자원봉사활동 모습들을 전시했다. 또한 불(佛)자 쓰기, 달마그리기, 경판 탁복하기 등의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리에 편승하는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뒤따라가는 시민들의 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활동비나 유지비 등의 재정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올바른 사회를 존

속시켜 나가기 위한 보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에 팽배한 개인적 이기주의는 나눔을 위한 마음을 공동 열려놓았다.
 'Giving Expo 2003'은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시민들에게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리고 전 사회적으로 기부, 즉 보시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성숙한 보시문화 정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은경(취재1부) 기

창간 9주년 특집 40면 발행



현대불교 창간 9주년
 1994~2003
 buddhanews.com

특집 I : 수행의 시대

지구촌에 수행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구 지성 사회에서 시작된 명상 열풍이 이제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서구에 부는 수행의 바람, 그 실상을 분석하고 한국불교 수행전통의 세계화를 위한 길은 무엇인지 점검했습니다. 또 과학과 명상의 만남, 청소년들의 수행 현장과 효과, 사이버 공간의 수행문화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구촌 수행열풍	3면	수행과 청소년	6면
명상과 과학	4면	정보화사회와 수행문화	7면
서구명상열풍-무엇이 통했나	5면	생활속의 수행대가들에게 듣는다	8면

특집 II : 문화포교

포교 인프라가 문화 마당으로 자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문화 예술 전통의 근간인 불교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문화 현장에서 어떻게 승화되고 있는지, 그를 통한 포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을 구별하지 않는 시대에 불교문화는 어떤 자생력을 갖고 포교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무한대의 부가 가치를 활용하라	27면	현장을 뛰는 사람들	29면
뜨는 열 노후유	28면	영상매체에 담긴 불교	30면

그림책으로 보는 현대불교 9년 12면
 축하합니다 13면
 북한불교답사기 14면

전국비구니회 7대 회장 명성스님

22일 취임법회 봉행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7대 회장에 명성스님(사진)이 추대됐다. 명성스님은 지난 9월 22일 전국비

구니회관에서 열린 전국비구니회 확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지만 그 동안 회장직을 고사해 오다 10월 8일 수락 의사를 밝혔다. 취임법회는 22일 전국비구니회에서 거행된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비구니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해 제7차 정기총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명성스님은 해인사에서 선행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와 조계종 3~9대 중앙종회의

원, 운문사 주지, 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운문사 회주, 운문승가대학장, 운문승가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주 상세인터뷰 보도)
 한상희 기자

이전안내

가사야와 성종사가
 조계사 쪽으로 새롭게 단장 이전하였습니다.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더욱 큰 신뢰와 정성으로 일하겠습니다.

·가사야 02)723-9714
 ·성종사 02)733-6141

BOWATER의 용지는 전세계 각국에 뉴스를 전합니다

BOWATER는 미국 South Carolina, Greenville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보워터한라제지(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10개의 공장에서 생산된 연간 3억 5천만톤의 신문용지를 중남미, 유럽,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세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ISO 14001 획득
 국제신문회가기기 시구원도호를 위해 제정된 규격에 따라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인증획득

보워터漢拿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 LTD.

본 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남산리 1034-1 TEL: 001-461-6114 FAX: 001-460-6789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5-1 5층 TEL: 02-667-1576 FAX: 02-631-2581